

“올 여름에도 뭔가 보여줘야죠”

제47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 열려... 500여 지도자 화합·교류

여름방학이 성큼 다가왔다. 전국 불교어린이지도자들이 각종 학원 수업과 과외 수업으로 지치고 지쳐가는 아이들을 위한 여름불교학교 준비에 들어갔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과 동원(이사장 지현)은 6월 6~7일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47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나누는 기쁨 하나되는 여름불교학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제주도와 울릉도 등 전국 각지 500여 지도자들이 함께 했다.

울릉도에서 시작된 연수는 신동석 교육실장(1%스피치커뮤니케이션)선, 닥터 글락에듀테인먼트 대표)의 ‘마음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나누는 기쁨”을 주제로 강의한 혜총 스님은 “욕심에 차 욕망만을 추구하는 거저의 삶을 버리고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참람자가 되도록 어린이들을 지도해 달라”며 나눔의 실천행인 탁발 공양,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뜻을 설명했다.

강의에 이어 포교원장 혜총 스님,

동원 이사장 지현 스님, 대한불교교사대학 학장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 동원동화구연회 회장 덕진 스님, 동원 상임이사 심산 스님, 포교국장 부명 스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입재식을 봉행했다.

지현 스님은 환영사에서 “불제자로서 일거일동에 부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수행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라”며 “지도자 여러분이 있기에 세상이 있고, 어린이 불교가 존재하고,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혜총 스님은 격려사에서 “연수회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에게 보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어린이지도자연수회의 발전을 당부했다.

발원문 낭독, 제25회 연꽃문화제 시상식, 동원 산하 각 단체 임원 위촉식, 동원동화구연회가 발간한 <부처님과 만나요!>와 플래시 애니메이션 10편이 담긴 동영상 CD 봉정식도 함께 진행됐다.

동원동화구연회 회장 덕진 스님(울산 정토사 주지)은 <부처님과 만나요!> 발간에 대해 “상대방의 수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



참가자들이 친불동요에 맞춰 율동을 익히고 있다.

한 매체를 통한 불법홍포가 절실했다”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부처님 법을 알아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입재식에 이어 불교학교 노하우 전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력에 따라 분반 작업으로 진행된 수업에서 전제일정표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원 사업부 정일훈 팀장은 “불교학교는 부처님의 삶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한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며 “불교학교 교사나

자원봉사자들은 불교학교를 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확실히 하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불교학교 10월 만에 준비하기, 기획, 홍보, 준비 단계 노하우를 전달했다.

지도자들은 모둠별 놀이와 풋볼 발원, 주의집중게임을 비롯한 불교학교 프로그램, 친불동요 ‘풍경소리 28집’에 맞춰 율동을 하는 등 다가 올 여름불교학교 준비를 앞당겨 마무리 했다.

이상언 기자 un62@buddhapia.com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포교 지향”

태고종 열린선원, 6월 6일 개원 4주년 기념법회 봉행

‘시장통 포교’를 표방하며 서울 갈현동 역촌중앙시장에 자리잡은 태고종 열린선원(선원장 법현)이 6월 6일 ‘개원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법회는 태고종 중앙총회의장 월은 스님, 전등사 주지 동명 스님, 설법연구원장 동출 스님, 동국대학교수 겸 한국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 덕양선원장 법상 스님 등 스님 30여 명과 신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1부 기념 강연에서 팔리문헌 연구소장 마성 스님은 ‘삼특상과 삼법인(三法印)의 차이’라는 논문



개원 4돌 기념법회에서 인사말하는 법현 스님.

을 자료로 존재의 세 가지 특질인 ‘삼법인’에 대해 설명했다.

제2부 기념법회는 삼귀의, 찬불가, 경전독송(‘쌍쌍따니까야’ 3법

인 관련 구절), 청법가, 격려법어(월은 스님), 인사말씀, 축하말씀(동명 스님), 축하노래(불자 가수 엘리스 블루), 발원문, 사홍서원 순서로 이어졌다.

선원장 법현 스님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선원이 성장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포교와 지금까지의 방침인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지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02) 386-4755

김성우 기자

“부처님 리더십 통해 정치 참여 방안 모색”

불교인재원, 6월 23~24일 ‘불교정치 리더십’ 강의 개최

불교인재원(이사장 허경만)은 자유, 평등, 우애의 정신을 설파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할 불자 정치인 발굴에 나섰다.

6월 23~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불교정치리더십’ 강의는 불교의 이상정치를 펼쳐나갈 인재와 정치 참여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

하는 자리다.

23일 △강정일 국회의원(민주당)이 불교와 정치리더십을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지역발전과 지자체장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한다. 24일 △김응철 불교인재원장은 불교경전에 나타난 정치리더십 △선거와 정치리더십 등을 강의한다.

불교인재원 관계자는 “부처님께

서 2500년 전 자유·평등·우애의 정신을 설파하며 불평등과 국자간의 갈등 등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현명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과 유권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각과 현명한 판단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제따와나선원 27일 개원

2007년 결성된 수행공동체서 출발

초기불교 수행을 기본으로 모법적인 수행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는 제따와나선원(선원장 일묵)이 6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방배동에서 개원법회를 연다.

제따와나선원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을 현대에 맞게 제시하고자 2007년 결성된 수행공동체다. 경전공부, 집중수련회 등으로 현대인에 맞는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가족법회를 비롯한 사회명사·심리학자 초청강의로 진행되는 특별법회, 불교·



2008년 11월 파옥 사야도 초청법회 모습.

영어·수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영어법회도 있다.

한편, 6월 30일~9월 23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수요일 오후 8~10시 <아비담마>특별 법회를 연다. 이상언 기자

바로잡습니다 735호에 보도된 신묘장구대라니 전문 수행도량 일산 덕양선원 연락처를 (031)907-7172로 수정합니다.

그대의 큰 원력 우리가 이으리...

김재일 법사 1주기 추모법회

염불운동, 대중포교로 평생을 살았던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 초대 이사장 덕산 김재일 법사 1주기 추모법회가 6월 7일 동산법당 3층에서 봉행됐다.

법회는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동산불교대학 인동일 이사장, 전 민주당 회장 김대중, 이문옥 전 감사관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김재일 법사의 염불운동과 일반 대중 포교사업을 회고하며, 지속적인 대중포교 발전을 다짐했다.

법타 스님은 추도사에서 “큰 원력을 품꾸던 동지였던 김재일 법사는 지난날 어려움을 함께 했던 사랑하는 친구였고, 깨달음을 구하던 도반

이었다”며 “김 법사를 이은 안동일 이사장이 또 하나의 원력보살이 돼 더욱 더 동산을 발전시켜 주고 있어서 한편으로 든든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앞서 김 법사와 20여년 동산가족으로 함께 해 온 안동일 이사장은 “김재일 초대 이사장이 제창한 동산반야가족의 5개 강령에 ‘김재일 법사의 설립이념을 길이 계승한다’는 강령을 더해 실천하고 있다”며 일반대중 포교에 원력과 서원을 세웠다.

추모법회는 인각 스님의 집전으로 재의식이 진행됐으며 김재일 법사의 육성법문 청취, 영단에 참가 인원 전원이 헌화하며 고인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이상언 기자

신행거시판

●**갈야니마타 명상선원 위빠사나 치유프로그램**=서울 갈야니마타 명상선원이 무력감이나 우울증, 대인 기피증, 심한 분노나 증오, 좌절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위빠사나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신치유 전문가인 아놀라 스님의 지도로 7월 11~12일 국제요가협회에서 진행한다. 참가비는 전액무료로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한편 7월 17일~8월 14일 5차에 걸쳐 연가수, 까르마를 푸는 사띠수행도 진행한다. (010)3904-3565

●**상도선원 ‘가려뽑은 양곳따라니까야’ 독송**=서울 상도선원은 6월 22일부터 격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선원 수미재에서 <가려 뽑은 양곳따라니까야>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발행) 독송을 한다. 상도선원 니까야 독송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생한 원음을 담은 초기불교경전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모임이다. (02)815-3391

●**윤달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6월 25일~7월 16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불교회관 6층 만불보전에서 ‘윤달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한다. 참가비는 3만원으로 5제를 수지한 불자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053)629-9500

●**연방죽선원 수행과 담마토크**=대전 연방죽선원은 6월 21일, 7월 19일 오후 3시 수행과 담마토크를 실시한다.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는 담마토크에서 여름집중수행을 진행한다. 여름집중수행은 7명 선착순 접수받으며 바다 스님이 지도한다. (010)3214-1255

종도모집 안내

대한불교 선밀종

밀(密)로서 점수(漸修)하고 선(禪)으로 돈수(頓修)를 하며 대중불교를 지향하는 본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중진 간부스님 및 사부대중을 모집합니다

식품사업부 지사 및 대리점 모집

국제 / 국내 특허제품 다수 보유. 건강식품 및 음료사업 유경험자

출판사업부

출판을 원하시는 종도스님 및 사부대중 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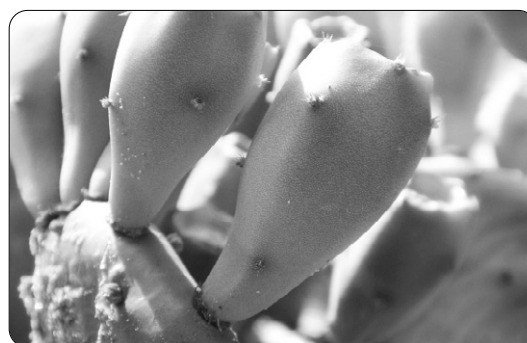


(주)자운 식품사업부
www.jawoonfood.co.kr
053)311-2675.2676

대한불교선밀종 총무원

전화 053)311-2677 / 010-3134-8484 / FAX 053)311-2634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95-1번지 (2-3층)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과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